

양혜규, 파리 퐁피두센터서 개인전

5 July, 2016

설치작가 양혜규 佛서 개인전



설치작가 양혜규(사진)가 6일부터 9월 5일까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인전 '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'를 개최한다고 국제

갤러리가 5일 밝혔다. 양 작가는 지난 10년간 지적 능력, 지성, 이해, 마음, 사고, 이성 등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'누스(nous)'를 주요한 개념으로 삼고 블라인드 설치 작품을 활발하게 해왔다.